

천문학적 손실 그대로 뒤서야... 잘잘못 따져 변상 필요



긴급진단 전남 F1 10년

〈下〉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법부는 최근 공직자의 배임 및 직무유기 등의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공직자 범죄 추이가 혐의가 드러나면 공직이 즉시 박탈되는 뇌물수수보다는 입증이 어려운 배임 등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뇌물수수보다 배임과 직무유기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재정적 손실과 심리적 파장이 지대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세'를 투입하는 대규모 공공정책 및 사업 결정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로 각인되고 있다.

하지만 F1 대회 유치 과정부터 개최, 중단 등 전과정은 '기밀 처리'됐으며, 협상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

전남대 법학대학원 박인호 교수는 "아무리 상대방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각 조항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공공자본을 투입하는 경우는 특히 더 노력해야 했다"며 "(인사마다 바뀌는)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가 쌓인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F1 조직위는 공무원들의 '기피부서'로 손꼽

타당성 조사·검토 총체적 부실... 배임·직무유기 가능성
나주 화훼단지·광주 갬코 구상권 등 비교 과실 규명 필요

히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책임·전문 행정'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1 대회를 유치·개최 과정에서 배임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다.

인수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F1 대회 운영법인 카보의 재무조달능력 부문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으나 전남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카보는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카보는 자본잠식 후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면서 전

남도의 출자금 173억원, 카보의 금융비용 252억원 등 425억원이 사라졌다.

또 경주장 건설비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2300억원이었으나 KDI 보고서에서는 299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실제로는 4285억이 소요됐다. 당시 전남도는 특수전자설비비 약 310억원 등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그 차이가 1287억~1985억원에 이른다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KDI개최권료 및 운영비도 2314억원에서 3067억원으로 753억원이 늘었으며, 2010~2011년 2년간 총계권료 295억원 등이 이후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남도의 설명이다. KDI가 F1 대회가 열리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비교·분석해 얻은 시설·운영 금액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만일 공직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면 직무유기, 이를 통해 제3자가 이익을 취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F1 대회가 마무리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만큼 이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지난 2010년 재직 시절 '나주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고 보조금 등 12억3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또 감사원은 신 시장 등 공무원 5명에게 8억9000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전임 시장이 결정해 추진하며 시비 106억원을 쓴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위한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혈세' 낭비 예방과 법적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8752억원이 투입된 F1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과 백서 발간을 통한 책임 규명도 없이 대회 중단과 FOM 측과의 위약 관련 협상으로 '대충'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8752억원의 전남도의 1년 가용예산 30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전남도는 F1과 관련 2975억원의 지방채를 내 아직도 1357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F1 개최로 인한 손실은 도민 전체와 미래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간호사관학교, 에볼라 방호복 점검. 국군간호사관학교 관계자들이 13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교내에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견돼 에볼라 퇴치활동을 벌일 의료진이 입게 될 방호복을 직접 착용하고 의료진이 받았던 교육훈련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빛가람도시, 공공기관 오니 지방세 '쏟아'

한전·농어촌공 등 올 210억... 우선 공공시설 관리비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새 터전을 잡으면서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곳으로, 3곳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 등이 낼 법인지방소득세는 85억원 규모다.

올해는 한국전력 150억원 등 모두 210

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지방세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라 규모가 늘 여지가 크다. 나주시의 총 예산이 5000억원을 밑도는 데다 가용재원이 수백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이 돈의 활용에 대해 나주시는 혁신도시 내 도로, 가로등,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 등에 연간 150억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해 이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다음달이라도 기금설치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돈을 활용할 곳을 정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관리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지난 2006년 성과 공유협약을 통해 이 공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기금관리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亞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한달째 공석

지건길 위원장 연임 고사...추진단 후임 물색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격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자리가 1개월째 공석이다.

1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조성위)를 이끌어온 지건길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7일 만료됐다. 지난 2012년 취임한 지 위원장은 추진단에서 연임요청이 있었으나 고

사했다.

추진단은 다각적으로 차기 조성위원장(14명)의 연임여부를 묻는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달째 조성위원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데다 오는 9월 문화전당 개

관을 앞두고 있어서다.

조성위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기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현안을 심의한다.

조성위원장은 문화부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조성위원장 후임자를 찾고 있으며 위원회 재편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道 '숲 속의 전남' 사업자 공모 민간 단체 대상 이달말까지

전남도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 관련 민간 참여 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가고 싶은 섬'에 이어 민선 6기 브랜드 시책 모두 시·군과 주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숲 공모 대상 단체는 마을 청년회, 봉사회, 여성단체, 직능단체, 새마을회 등 비영리 민간 자생단체다. 대상 사업은 마을 숲, 담장녹화, 하천 숲, 쓰레기매립장 공원, 관광지 주변 풍치 숲 등 생활 주변의 숲 조성사업이며, 도비와 시군비(각 50%)로 모두 18억원을 지원한다.

민간단체 대표(개인)가 해당 시군에 사업 목적, 내역, 사업비 산출 내역, 사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조성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경관, 디자인, 산림,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 실무 협의회의 심사와, 전남도의 종합적인 조정을 거쳐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심사 기준은 숲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실행 의지와 사업 효과, 대상지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접근성, 개방성, 이용성, 사후관리 등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13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시·군

산림부서 담당 과장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605억원, 도비 740억원, 시·군비 1845억원, 민간 110억원 등 모두 5300억원을 투자해 3만1000ha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2015년 사업 대상지는 오는 2월4일까지 공모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2015년 새천년종합건설(주)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①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직급	인원	응시자격	비고
건축	임원	0명	- 대졸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 본사공무 3년이상, 건축현장소장 유경험자 - 주택사업(설계, 시공관리, 원가분석) 유경험자 우대	본사 및 현장
	사원~차장	0명	- 대졸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 본사공무 유경험자 - 공동주택(민간, 저체사업) 공무/공사업무 경력자 - 건축부문 관련자격증 소지자	

②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홈페이지내 채용정보 당사 소정양식에 한함. (www.new2001.com)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1부

③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접수, 채용여부 e-mail 및 SMS통보)
- 2차 면접

④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015. 1. 27(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500-862) 광주 북구 경열로 208(유동) 새천년빌딩 7F 인사총무팀
- 메일접수 ▶ tulip310@naver.com
- 문의처 : 062531-0088, FAX 062531-0444

⑤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인사용도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됨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함
- 입사 지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사를 취소함

New Millennium Construction Co., Ltd.

새천년종합건설(주)